

국제

영김 “북한 강제노동 생산제품 반입 안 되게 제재 강화해야”

입력 2024.07.02 (07:25) | 수정 2024.07.02 (07:27)



요약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영 김 의원은 “북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현지시각 1일 폭스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국무부는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따라 강제 노동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검토·갱신하고 새로 추가된 모든 단체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초 미국의 유명 기업이 북한의 강제 노동에 의존하는 중국 생산자로부터 해산물을 공급받다가 적발됐으며 이후 일부 회사들은 관련 중국 생산자와 관계를 끊었다”면서 “북한이 (미국의) 적국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은 제재의 구멍을 찾고 효과적으로 이를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영리 탐사보도 단체 ‘불법 바다 프로젝트’(Outlaw Ocean Project)는 지난 2월 중국의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해산물 가공품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제보하기

- ▷ 카카오톡: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 전화: 02-781-1234, 4444
- ▷ 이메일: kbs1234@kbs.co.kr
-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석호 기자 | parkseokho@kbs.co.kr

분야별

전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IT·과학
국제
재난·기후·환경
생활·건강
스포츠
연예
날씨
이슈

TV 뉴스

1TV 뉴스

06:00 뉴스광장 1부 17:00 뉴스 5
07:00 뉴스광장 2부 19:00 뉴스 7
09:30 930뉴스 21:00 뉴스 9
12:00 뉴스 12 22:50 뉴스라인 W
14:00 뉴스 2

2TV 뉴스

10:00 아침뉴스타임
15:00 뉴스타임
18:00 경제콘서트 **NEW**
20:30 월드24

뉴스특보

1TV 경인

뉴스광장(경인)
930뉴스(경인)
뉴스7(경인)
뉴스9(경인)

프리미엄K

취재K

심층K 단독
취재후·사건후 제대로 보겠습니다
여심야심 크랩
데이터룸 주말엔
팩트체크K 친절한뉴스K
탐사K 기후는 말한다
씨네마진국 News Today(영어뉴스)
스포츠K 일제 강제동원 유적지 **NEW**
뒷북뉴스 **NEW**

글로벌K

영상K

시사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일요진단 라이브
더 보다
남북의 창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재난방송센터
사사건건
인사이드 경인

라디오

전격시사
성공예감
시사본부
뉴스레터K

지역뉴스

부산 순천
울산 전주
창원 대전
진주 청주
대구 충주
안동 춘천
포항 강릉
광주 원주
목포 제주

바로가기

좋아요 클립
제보
속보
재난포털
ON AIR
뉴스 아카이브

공지·정정